

# 지식귀속은 민감하게 이뤄지는가?

## :'안다'에 대한 맥락주의 및 주체-민감주의 의미론 비판 (Is Knowledge Ascription Sensitive at all?: A Critique of Contextualist or Subject-sensitivist Semantic Approaches to 'know')

한성일(서울대학교)

**【요약문】** 이 논문에서, 필자는 지식귀속이 발화 또는 주체의 문맥에 민감하다고 보는 '안다'에 대한 '민감주의'를 비판한다. Peter Unger는 '평평한', '확실한'과 같은 절대적 용어에 대한 둔감주의를 바탕으로 '안다'에 대한 둔감주의를 제안한 반면, David Lewis는 절대적 용어에 대한 민감주의를 바탕으로 '안다'에 대한 민감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두 견해 모두 '안다'가 절대적 용어의 집합에 속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안다'에 대한 Unger-식의 둔감주의에 반대한다. 필자의 주장에 의하면, '의미론적 면도날'이라고 부를 원칙에 입각할 때 우리는 절대적 용어와 관련해선 둔감주의보다 민감주의를 택할 이유를 가지지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필자는 '안다'에 대한 민감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잘 살펴보면 '안다'와 절대적 용어(또는 민감한 용어 일반)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절대적 용어(또는 민감한 용어 일반)와는 달리, '안다'는 맥락에 민감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런 주장들은 민감주의 의미론이 다른 많은 경우들에서 성공적일지라도 '안다'는 둔감한 용어로 간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 raise an objection to "sensitivism" about "know", according to which knowledge ascription is sensitive to contexts of utterance or subjects. While Peter Unger once proposed insensitivism about "know" in terms of insensitivism with respect to absolute terms, David Lewis provided sensitivism about "know" in terms of sensitivism with respect to absolute terms, on the common ground that "know" belongs to a class of absolute terms. On the one hand, I object to Unger-style insensitivism about 'know,' for, I claim, we have reason to opt for sensitivism rather than insensitivism with respect to absolute terms in virtue of the maxim that I call "semantic razor." On the other hand, I also object to sensitivist approaches to "know," for, on reflection, there is such a deep difference between "know" and absolute terms (or, sensitive terms altogether) that "know" cannot be taken to sensitive to contexts as opposed to absolute terms (or, sensitive terms altogether). These claims jointly indicate that "know" should be thought of as an insensitive term even though sensitivism has enjoyed wide acceptance in many other cases.

**【주제어】** 지식귀속, 맥락주의, 주체-민감주의, 회의론, 절대적 용어, Peter Unger  
**【Keywords】** knowledge ascription, contextualism, subject-sensitivism, skepticism, absolute terms, Peter Unger

## 1. 도입

어떤 용어의 의미론적 값<sup>1)</sup>은 맥락에 상관없이 결정되고 따라서 그 용어가 포함된 문장의 진리값은 맥락에 둔감하게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영호는 총각이다.”라는 문장의 진리값은 그 문장을 발화하는 사람이 독신주의자이든 아니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즉 발화의 맥락과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그 문장의 진리값은 문제의 용어 ‘총각이다’와 관계하고 있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즉, 영호)이 스스로 결혼을 갈망하든 아니든, 즉 주체의 맥락<sup>2)</sup>과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그 문장은 단지 영호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다.

- 
- 1) ‘의미론적 값(semantic value)’으로 필자는 Kaplan(1989, 500-7)적 의미에서 ‘말해진/표현된 것(what is said/expressed)’ 또는 ‘내용(content)’을 의미한다. 표현은 두 가지 종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나는 목마르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그 문장을 누가 발화했는가, 즉 맥락을 모르더라도 알 수 있다. 이 때 그 사람이 그 문장을 통해 파악한 의미는 Kaplan적 의미에서 ‘character’이다. 이는 그 문장이 언제 참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한국어 규약들에 의해 주어지는 의미이다. 반면 한국어에 아무리 능통하더라도 그 문장을 누가 발화했는가를 모른다면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모르는 그런 의미가 있다. 즉 이 경우 그는 그 문장에 의해 말해진 바, 즉 내용이 “한성일은 목마르다.”인지 “황영조는 목마르다.”인지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 그는 그 문장의 발화자가 필자인지 결승선에 다다른 그 마라토너 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맥락에 민감한 문장은 각 맥락에 상관없이 같은 character를 가지지만 맥락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진다. 의미론적 값은 이런 의미에서의 내용을 뜻한다. 이 구분은 의미론적 논의에서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혼동되곤 한다. 이 구분 및 의미론에서 맥락이 하는 역할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또한 Lewis(1998)를 참조.
  - 2) 이후에 ‘주체’는 항상 문제의 용어와 관계되어 있는 주어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행복한’의 경우에 ‘주체’는 ‘행복주체’를, ‘안다’의 경우에는 ‘인식주체’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필자는 ‘context’에 대한 번역어로, 원래의 ‘문맥’을 버리고, ‘상황’이 아니라 ‘맥락’을 취했다. 이는, 의미상으로는 ‘상황’이 가장 적합하리라 생각하나 그렇게 될 경우 ‘situation’에 대한 번역어라고 생각될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유용한 조언을 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다른 한편, 어떤 용어의 의미론적 값은 발화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따라서 그 용어가 포함된 문장의 진리값은 발화의 맥락에 민감하게 결정된다. 예를 들어, ‘키가 큰’의 의미론적 값은 각 발화의 맥락에서 어떤 준거집단이 상정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져서 “영호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의 진리값은 발화의 맥락에 민감하게 결정된다. 만약 그 문장을 교내 농구선수를 선발하려는 체육선생님이 발화한다면 그 진술은 영호가 중학교 농구선수의 기준에서 키가 크다는 것을 표현하여 참이지만 성인선수를 선발하려는 프로 농구코치가 발화한다면 그 진술은 영호가 성인 농구선수의 기준에서 키가 크다는 것을 표현하여 거짓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장의 진리값은 (영호, 즉 주체가 또한 발화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주체의 맥락에 둔감하게 결정된다. 영호는 늘 NBA 농구선수를 꿈꾸며 스스로 키가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체육선생님의 발화, “영호는 키가 크다.”는 여전히 참일 수 있다. 이처럼, ‘키 큰’과 같은 용어의 의미론적 값은 발화의 맥락에 민감하면서 주체의 맥락에는 둔감하게 결정된다.

이와 달리, 어떤 용어의 의미론적 값은 주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따라서 그 용어가 포함된 문장의 진리값은 주체의 맥락에 민감하게 결정된다. 예를 들어, ‘행복한’의 의미론적 값은 각 주체의 맥락에서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범위가 어떻게 상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져서 “영호는 행복하다.”라는 문장의 진리값은 주체의 맥락에 민감하게 결정된다. 영호가 아무 근심 없이 연인과 봄날을 즐기고 있을 때 그 문장은, 영호에 의해 고려되고 있는 그 범위  $S_{\text{narrow}}$  안의 모든 조건의 최종값이 만족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표현하여 참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한 달 후 입대하여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부각되면 그 범위  $S$ 가 확장되어 그 문장은, 영호에 의해 고려되고 있는 그 범위  $S_{\text{wide}}$  안의 모든 조건의 최종값이 만족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표현하여 거짓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장의 진리값은 발화의 맥락에는 둔감하게 결정된다. 연인과 함께 봄날을 즐기는 영호에게 다른 불만족의 요소가 부각되지

않는 한, 지독한 염세주의자가 “영호는 행복하다.”를 발화한다고 해서 그 발화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행복하다’와 같은 용어의 의미론적 값은 발화의 맥락에 둔감하면서 주체의 맥락에 민감하게 결정된다.<sup>3)4)</sup>

이 글에서 필자는 어떤 용어와 관련해 그 용어의 의미론적 값이 발화의 맥락에 민감하게 결정된다고 보는 의미론적 견해를 ‘맥락주의 의미론’, 줄여서 ‘맥락주의(contextualism)’, 주체의 맥락에 민감하게 결정된다고 보는 의미론적 견해를 ‘주체-민감주의 의미론’, 줄여서 ‘주체-민감주의(subject-sensitivism)’, 그리고 그 두 의미론을 아울러 ‘민감주의 의미론’, 줄여서 ‘민감주의(sensitivism)’라고 부르고자 한다. 반면에 어떤 용어와 관련해 그 용어의 의미론적 값이 발화 또는 주체의 맥락과 상관없이, 즉 그것들과는 둔감하게 결정된다고 보는 의미론적 견해를 ‘둔감주의 의미론’, 줄여서 ‘둔감주의

---

3) 보통 ‘행복하다’는 맥락주의자들에 의해 **맥락에** 민감한 용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왔고 (예를 들어, Cohen 1999, 60) 또 필자가 아는 한 누구도 민감한 용어들을 발화의 맥락에 민감한 용어와 주체의 맥락에 민감한 용어로 분류하려 시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행복하다’도 **주체의 맥락에** 민감한 용어로 분류된 적이 없다. 하지만 필자는 맥락주의자들이 ‘행복하다’를 맥락에 민감한 용어로 분류할 때 어떤 맥락인가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을 뿐 그들이 필자의 이 분류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위 논의가 ‘행복하다’에 대한 주체-민감주의 옹호 논변으로 간주되기 바란다.

4) 또한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제기해 주신 다음의 물음을 고려함으로써 ‘맥락에 민감함’을 보다 명확히 해 보고자 한다: 필자에 따르면 “철수는 물을 마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주체의 맥락에 민감한가? 그렇지 않다. ‘물을 마시려는 의도를 가짐’의 의미론적 값을 결정하는 데에 - 적어도 화자의미가 아니라 문장의미만을 고려할 때 - 맥락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 값은 그 문장에 나타난 요소들과 그것들의 문법적 배열에 의해 충분히 결정된다. 반면에 필자가 고려한 용어들, ‘키 큰’, ‘행복한’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 경우 의미론적 값은 그 문장에 나타난 요소들과 그것들의 문법적 배열에 의해 충분히 결정되지 않는다. 그 결여된 부분(어떤 준거집단 기준에서?, 행복지수 조건의 어떤 범위?)은 맥락에 의해 채워진다. 이 점과 관련해 필자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insensitivism)’라고 부르고자 한다.<sup>5)</sup>

이제 우리는 각 용어가 보이는 언어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의미론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우선, Peter Unger(1975, Ch.2)를 따라 정도 수식어를 허용한다는 구문론적 특징을 가진 용어들과 그렇지 않은 용어들로 구분해 보자. 그렇지 않은 용어들에는 앞서 살펴본 ‘총각이다’ 이외에 ‘3kg이다’, ‘참이다’ 등이 있다. (“매우 3kg이다??”, “매우 참이다??”) 이런 용어를 편의상 ‘비정도-용어’라고 부르자. 한편 정도-용어에는 ‘평평한’, ‘확실한’, ‘키 큰’, ‘행복한’ 등이 있다. (“매우 평평하다.”, “키가 매우 크다.”) 그런데 정도-용어는 다시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키 큰’, ‘행복한’과 같은 상대적 용어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 용어의 부정을 통해 정의되는 ‘평평한’, ‘확실한’과 같은 절대적 용어이다.<sup>6)</sup> (‘평평한’은 ‘굴곡 없음’으로, ‘확실한’은 ‘의심 없음’으로 거칠게 정의될 수 있다.) 앞서 보았듯 비정도

- 
- 5) ‘민감주의’와 ‘둔감주의’는 필자 자신의 용어법이다. Hawthorne(2004)은 용어의 의미론적 값이 (발화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가의 여부를 두고 ‘맥락주의’와 ‘불변주의(invariantism)’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안다’라는 용어의 의미론적 값은 (발화의) 맥락에는 불변하지만 주체에 민감하게 달라진다고 보는 자신의 견해를 ‘민감한 온건 불변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필자의 용어법에 따를 때 그의 견해는 주체-민감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필자가 필자 자신의 용어법을 도입한 이유는 필자의 비판의 초점이 특정 의미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다’의 의미론적 값과 관련하여 발화의 맥락이든 주체의 맥락이든, 맥락에 호소하는 의미론적 견해 일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론 의미론적 전통에 따를 때 ‘맥락’은 보통 발화의 맥락만을 의미하도록 사용되지만 필자는 여기서 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발화의 맥락’과 ‘주체의 맥락’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DeRose의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의미론적 견해를 나타낼 때는 ‘발화-맥락주의’, ‘주체-맥락주의’라고 하지 않고 기존 이론의 이름을 살리기 위해 각각에 대해 ‘맥락주의’, ‘주체-민감주의’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 6) 물론 비정도-용어도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 용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도-용어 중의 한 종류를 절대적 용어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익명의 한 심사위원께서 제기해 주신 몇 가지 문제는 필자가 이 용어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치 않은 데에서 비롯했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Unger 이래로 받아들여져 온 이 용어법을 사용하겠다.

-용어에 대해서 둔감주의가, 상대적 용어에 대해서는 민감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은 별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절대적 용어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다. Unger(1975, Ch.2)는, 상대적 용어들과는 달리, ‘평평한’이나 ‘확실한(certain)’과 같은 절대적 용어에 대해 둔감주의를 취하는 반면 David Lewis(1983, 244-6)는 절대적 용어에 대해서도 맥락주의를 취한다. 절대적 용어에 대한 이런 의미론적 이견은 지식에 대한 회의론 논의에 확장되어 적용되어 왔다. 그들 모두 ‘안다’를 절대적 용어의 하나로 간주하지만, 절대적 용어에 대한 각자의 의미론을 기반으로 회의론자는 ‘안다’에 대한 둔감주의를 주장한다면 (그럼으로써 지식에 대한 회의론을 주장한다면?) 민감주의자는 ‘안다’에 대한 맥락주의<sup>8)</sup> 또는 주체-민감주의<sup>9)</sup>를 주장한다.

필자가 보기에 절대적 용어의 의미론과 관련해서는 (상대적 용어에서처럼) 민감주의적 접근이 옳다. 그 점에서 Unger-식의 지식귀속의 둔감주의 옹호가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용어에 대한 민감주의를 바탕으로 ‘안다’에 대해서도 민감주의를 적용하려는 (맥락주의적 또는 주체-민감주의적) 시도는 옳지 못하다. 그 점에서는 일련의 Lewis-식 지식귀속의 민감주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 결국 ‘안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절대적 용어가 아니라 일종의 비정도-용어라는 점에서 둔감주의 의미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 필자는 이어지는 절에서 왜 그러한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7) 예를 들어, Unger(1975). 사실 ‘안다’에 대한 둔감주의를 옹호하는 견해로는 회의론 이외에 무어주의가 있다. 무어주의자도 ‘안다’의 의미론적 값이 발화의 맥락이나 주체의 맥락에 둔감하게 결정된다고 본다. 두 견해의 차이점은 회의론자는 지식의 기준이 맥락에 상관없이 매우 높아서 대부분의 지식귀속이 거짓이라고 보는 반면 무어주의자는 그 기준이 맥락에 상관없이 적절히 낮아서 대부분의 지식귀속이 참이라고 본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무어주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글에서의 ‘안다’에 대한 둔감주의를 곧 지식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해해도 좋다.

8) 예를 들어, Lewis(1996), DeRose(1995), Cohen(1999).

9) 예를 들어, Hawthorne(2004).

## 2. 절대적 용어에 대한 의미론적 논의

‘굴곡진’과 같은 상대적 용어에 대해, 우리는 저 운동장과 저 길 둘 다 굴곡져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저 길이 운동장보다 더 굴곡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Unger에 따르면, ‘평평한’과 같은 절대적 용어는 상대적 용어에 의해 표현된 어떤 속성들(이 경우 굴곡짐이란 속성)이 전혀 예화 되지 않은 대상들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 저 도로가 이 책상만큼 평평하지 않다 또는 이 책상이 저 도로보다 더 평평하다는 것이 참이라면 (그래서 저 도로는 이 책상에는 없는 굴곡을 포함한다면) 저 도로는 평평하지 않다는 것이 함축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Unger의 정의에 따를 때, 임의의 절대적 용어 F와 어떤 상대적 용어 G에 대해, ‘a가 F이다’는 것은 ‘a에는 전혀 어떤 G인 것도 없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고 따라서 F와 관련해서 b가 a만큼 F이지 않으면 b는 F이지 않다는 것이 함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평평한 것에 대한 회의론적 논증이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영호가 새로 아스팔트를 깔아 놓은 도로를 보고

(1) 저 도로는 평평하다.

라고 발화했다고 하자. 일견 영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평평한 것에 대한 회의론자는 절대적 용어의 의미론적 특징들과 몇몇 사실들로부터 (1)이 참일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려 한다.

(2) 저 도로는 이 책상만큼 평평하지 않다.

(3) 저 도로가 이 책상만큼 평평하지 않다면 저 도로는 평평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저 도로는 평평하지 않다.

아스팔트를 새로 깐 도로라고 해도 책상만큼 평평하지는 못하고 따라서 (2)는 참이다. 또한 (3)은 앞서 살펴보았듯 ‘평평한’이란 절대적 용어의 정의에 의해 참이다. 따라서 우리는 참인 전제 (2), (3) 으로부터 전건 긍정에 의해 얻은 귀결 (4)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분명 (4)는 (1)과 모순되므로, 회의론자는 주장하기를, (1)은 거짓이다. 이러한 논증은 도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어떤 종류의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아무리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것보다 더 평평한 것들은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논증으로 인해 그 대상은 결국 평평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회의론자는 그래서 엄밀히 말해 사실상 모든 x에 대해 “x가 평평하다”는 진술은 거짓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 평평한 것이라곤 사실상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평평하다고 말할 때 왜 우리는 참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믿는가? 영호의 발화 (1)이 거짓이라면 왜 영호는 그것이 참인 것처럼 진술하는가? 이에 대해 회의론자는 (의미론적으로) 표현되는 것(what is expressed)과 (대화상에서) 소통되는 것(what is communicated)을 구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영호의 발화 (1)은 거짓인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대화상에서 적절한 정보(영호의 관심에 비추어 볼 때 관련한 정도 하에서는 그 도도가 충분히 굴곡이 적다는 것)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왜 우리가 ‘평평한’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올바른 것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왜 보통 평평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Lewis(1983, 245-6)에 의해 옳게 지적되었듯이 어떤 용어가 상대적 용어가 아니라 절대적 용어라는 것으로부터 위와 같은 회의적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와 달리 절대적 용어에 대해서도 상대적 용어와 마찬가지로 맥락주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용어에 대한 맥락주의에 따르면, 그 용어의 의미론적 값은 오직 특정 맥락 하에서만 결정될 수 있고 그 맥



락에 따라 달라진다. 즉, “a는 평평하다.”는 “a에는 그 맥락에서 유관한 범위 안에서 어떤 굴곡도 전혀 없다.”와 같이 맥락주의적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호가 자전거 탈만한 도로를 물색하던 중 (1)을 발화했을 경우 만약 그 도로에 큰 웅덩이나 큰 돌무더기가 있다면 그 진술은 거짓이다. 만약 자전거 타는 것과는 무관한 정도의 굴곡만이 있다면 그 진술은 참이 된다. 하지만 “저 도로는 평평하다”는 단적으로는(simpliciter) 아직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영호가 (1)을 맥락1에서 참되게 진술했다고 해 보자. 그런데 (2)가 참되게 진술된 맥락은 맥락1과 같은 맥락이 아니다. (2)를 진술할 때 화자는 애초에 (1)을 참되게 진술하게 만든 그 원래 맥락에서 벗어나서 도로와 책상을 비교하는 보다 엄격한 맥락으로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2)가 참되게 진술되는 맥락을 맥락2라고 하자. 그러면 회의론적 논증의 전제들이 참되게 진술된 맥락을 명시하면 우리는 회의론적 논증에 대한 맥락주의적 버전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2\*) (2)는 맥락2에서 참이다.

(3\*) (3)은 각각의 맥락에서 참이다.

(4\*) (그러므로,) (4)는 맥락2에서 참이다.

우리는 (4\*)를 참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즉 “맥락2에서 저 도로는 평평하지 않다.”가 참이지만 그것은 (1)에 대한 맥락주의적 번역 “맥락1에서 저 도로는 평평하다.”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게다가 맥락2가 맥락1보다 더 적법한(legitimate) 맥락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Lewis 1983, 246) 즉, 맥락2에서의 (1)의 발화가 거짓이므로 맥락1에서의 (1)의 발화가 참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철회할 어떤 근거도 우리는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적 용어의 의미론적 값이 맥락에 상관없이 고정된다고 보는 둔감주의 의미론 대신 절대적 용어에 대한 맥락주의 의미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회의

적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참이라고 믿어온 진술들은, 맥락주의 의미론 안에서, 모두 여전히 참이다.<sup>10)</sup>

그러면 절대적 용어와 관련해 어떤 의미론적 접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두 이론 간의 우위는 어떻게 가려질 수 있는가? 일단 두 의미론 모두 우리의 전-이론적인 언어적 사용을 구제하는 데에 성공적이다. “저것은 평평하다.”가 표현하는 명제는 무엇인가?

(둔감) 저것은 어떤 점에서도 굴곡이 없다.

(민감) 저것은 그 맥락에서 유관한 정도에서 굴곡이 없다.

둔감주의에 따르면, 그 문장에는 맥락을 지시하는 어떤 표현도 없으므로 그 문장은 (둔감)을 표현하고 따라서 거짓이다. 하지만 대화상에서 주어진 화용론적 요소가 그 명제가 담지 못하고 있지만 화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정보,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에 알맞은 정도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채운다. 다시 말해, 둔감주의에 따르면, 화자는 그 문장을 사용하여 거짓이지만 적절한 의미론적 값을 가지는 명제를 표현함으로써 대화상에서 주어진 화용론적 요소의 도움으로 자신이 의도한 올바른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성공한다. 반면에 민감주의자에 따르면, 위 문장은 그것을 나타내는

10) Unger는 ‘평평한’과 마찬가지로 ‘확실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둔감주의 의미론을 적용하고, Lewis는 ‘평평한’과 마찬가지로 ‘확실한’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맥락주의 의미론을 적용한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Lewis가 ‘맥락주의’로 느슨히 민감주의를 의미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확실한’의 의미론적 값은 발화의 맥락이 아니라 주체의 맥락에 민감하게 결정되므로 ‘확실한’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맥락주의가 아니라 주체-민감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호는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의 진리값은 오직 영호의 맥락에, 그가 일기예보를 의심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어떤 의도로 발화하는가, 즉 발화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 용어에 대한 현재의 의미론적 논쟁이 둔감주의와 맥락주의 간에 아니라 엄밀하게는 둔감주의와 민감주의 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표현도 없지만 명시되지 않은 요소(unarticulated constituent)를 포함하는 (민감)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민감주의에 따르면, 화자는 대화상에서 주어진 화용론적 요소 또한 의미론적 값으로 포함하는 참인 명제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의도한 올바른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성공한다. 따라서 두 의미론 모두 ‘평평한’과 관련해 전-이론적인 우리의 언어 사용을 구제한다.<sup>11)</sup>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마도 통합성, 단순성 등과 같은 ‘무승부-깨기’ 덕목들을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감주의자는 상대적 용어나 절대적 용어에 같은 의미론을 적용하지만 회의론자는 그렇지 못하므로 민감주의가 이론적 통합성의 측면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해 쉽게 긍정적인 답을 내릴 수 없다. 어찌되었든 그 두 용어군은 서로 구분되는 것임에 틀림없고 그렇다면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론을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단순성의 측면은 어떠한가? 이 역시 도움이 안 된다. 화용론적 요소를 의미론적 값으로 포섭한다는 점에서 민감주의는 단순하지만, 어떤 문장에 나타난 표현들과 그것들의 문법적 배열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는 명제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단순치 않다. 그리고 정확히 그 반대가 둔감주의에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절대적 용어와 관련해서 민감주의를 선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른 모든 점에서 같다면 진실되고(sincere) 유창한(competent) 화자의 발화가 참을 표현한다고 말하는 의미론이, 그의 발화가 사실은 거짓을 표현한다고 말하는 의미론보다 더 좋은 의미론이지 않을까? 다음의 원리를 보자.

11) Unger도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론이 더 옳은 의미론인가를 결정지을 사실은 없다고 본다는 점을 필자는 Hawthorne(2004, 119, 각주16번)을 통해 알았다. Lewis(1983)도 절대적 용어에 대한 맥락주의적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그것을 옹호하고 있지만 절대적 용어에 대한 둔감주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의미론적 면도날) 불필요하게 거짓을 증가시키지 말라.<sup>12)</sup>

앞서 말했듯이, 두 의미론 모두 우리의 전-이론적 언어 사용을 구제한다는 점에서는 동등하다. 물론 혹자는 전-이론적 언어 사용을 성공적이게 하는 것만이 의미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고 (의미론적 면도날)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민감주의에서 관련 진술이 참이 된다는 점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점은 둔감주의에서 그것이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 대화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관련 진술이 참이라고 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갈 것인지에 대해 우리의 판단은 비결정적이거나 유보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화의 성공을 보장하고선 관련 진술을 거짓으로 하는 것에는 우리는 비교적 분명한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는 일상 진술이 참이게 하는 의미론을 선호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필자가 보기에, (의미론적 면도날)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둔감주의보다 민감주의를 선호할 좋은 이유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필자가 절대적 용어에 대해서는 민감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

12) 필자는 전-이론적 언어 사용에서 두 의미론이 동등하나 민감주의는 둔감주의와 달리 진실되고 유창한 화자의 발화가 참을 표현한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선호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심사자께서 바로 그 후자의 사실이 민감주의가 전-이론적 언어 사용에서 둔감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고 지적해 주셨다. 하지만 전-이론적 언어 사용의 구제는 대화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참을 보장하는 것은 이론에 의해 보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지적은 필자 초고의 불명료함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 둔다.) 또한 같은 심사자께서 둔감주의자가, 주체의 맥락이라는 이상한 개념에 호소하지 않을 필요에 의해 민감주의에 반대하여 거짓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해 주셨다. 하지만 둔감주의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주체의 맥락이란 개념이 완전히 투명해서가 아니라 둔감주의자도 화용론적 요소를 끌어들이는 때 그 개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 3. 지식귀속에 대한 ('안다'에 대한) 의미론적 논의

절대적 용어에서와 평행하게 지식에 대한 회의론적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영호를 보고서 철수가

(5) 영호는 그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라고 발화했다고 하자. 일견 철수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회의론자는 (5)가 참일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 주려 한다.

(6) 영호는 그가 통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7) 영호가 그가 손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면 영호는 그가 통속의 뇌가 아님을 안다.

(8) (그러므로,) 영호는 그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회의론에 따르면, 우리가 통속의 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통속의 뇌 가설이 거짓임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으로부터 (6)은 참이다. 또한 (7)은 영호가 손을 가지고 있음은 그가 (손 없는) 통속의 뇌가 아님을 함축한다는 사실과 알려진 연역 하에서 지식의 폐쇄성으로부터 참이다.<sup>13)</sup> 따라서 우리는 참인 전제 (6), (7)로부터 후건 부정에 의해 얻은 귀결 (8)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분명 (8)은 (5)와 모순되므로, 회의론자는 주장하기를, (5)는 거짓이다. 이러한 논증은 모든 (적어도 대부분의 경험

13) 물론 알려진 연역 하에서의 지식의 폐쇄성을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Dretske1970) 하지만 여기서는 폐쇄성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폐쇄성-부정이 가지는 반직관적 귀결에 대해서는 DeRose(1995, 27-9) 참조.

적) 명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회의론자는 엄밀히 말해 사실상 모든 (적어도 대부분의 경험적) 명제 p에 대해 “우리는 p를 안다”는 진술은 거짓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회의론자는 발화 (5)는 의미론적으로 거짓을 표현하고 있지만 소통되는 것은 올바른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5)를 발화할 때 참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전-이론적 언어 사용은 보존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용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회의적 논증에 대응하기 위해 민감주의자는 일단 ‘안다’에 대한 의미론을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다’에 대한 맥락주의에 따르면, 그 용어의 의미론적 값은 오직 발화의 맥락 하에서만 결정될 수 있고 따라서 그 값은 발화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맥락주의에 따르면, 어떤 발화의 맥락에서의 “S는 p를 안다.”는, 예를 들어, “S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따를 때 p는 참이고 그 맥락에서 유관한 범위 안에 p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회의적 논증에 대한 맥락주의자의 대응은 이렇다. 철수가 (5)를 발화맥락1에서 참되게 진술했다고 해 보자. 그런데 (6)이 참되게 진술된 맥락은 발화맥락1과 같은 맥락이 아니다. (6)을 진술할 때 화자는 애초에 (5)를 참되게 진술하게 만든 그 원래 맥락에서 벗어나서 영호의 손을 가짐과 영호의 통속의 뇌임을 비교하는 보다 엄격한 맥락으로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6)이 참되게 진술되는 맥락을 발화맥락2라고 하자. 그러면 위 회의론적 논증의 전제들이 참되게 진술된 발화맥락을 명시하면 우리는 회의론적 논증에 대한 맥락주의적 버전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6\*) (6)은 발화맥락2에서 참이다.

(7\*) (7)은 각각의 발화맥락에서 참이다.

(8\*) (그러므로,) (8)은 발화맥락2에서 참이다.

우리는 (8\*)를 참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즉 “발화맥락2에서 영호는 그가 손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가 참이지만 그것은 (5)에 대한 맥락주의적 번역 “발화맥락1에서 영호는 그가 손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맥락주의자는 우리가 애초에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여전히 지식으로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주체-민감주의자는 이상의 논의에서 ‘발화의 맥락’을 ‘주체의 맥락’으로 대체함으로써 이것과 정확히 상응하는 방식으로 회의적 논증에 대응할 수 있다.<sup>14)</sup>)

이처럼 평평한 것에 대한 회의적 논증과 지식에 대한 회의적 논증이 정확히 대칭적이고 또한 각 논증에 대한 민감주의적 대응이 정확히 대칭적이라는 사실은 일견 ‘안다’가 다른 절대적 용어의 하나라는 생각에 힘을 실어 준다. 따라서 민감주의자는 지식귀속에 대한 민감주의를 다음과 같이 옹호하려 할 수 있다: 절대적 용어에 대해서는 민감주의가 적용된다; ‘안다’는 일종의 절대적 용어이다; 그러므로 ‘안다’에 대해서도 민감주의가 적용된다. 필자가 보기에 지식귀속에 대한 일련의 민감주의적 시도는,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바로 이러한 논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식귀속에 대한 민감주의 옹호가 성공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전제를 부정하는 강한 언어적 증거들이 있고 또한 ‘안다’와 절대적 용어, 더욱이 민감한 용어 일반 사이에는 ‘안다’를 민감한 용어로 취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또한 평평한 것에 대한 회의적 논증에서와 달리 지식에 대한 회의적 논증에 대한 민감주의적 대응이 성공적이지 못함을 아울러 드러낼 것이다.

#### 4. ‘안다’는 또 다른 민감한 용어로 간주될 수 있는가?

Jason Stanley(2004)는 ‘안다’가 ‘평평한’, ‘키 큰’ 등과 같이 발화의

14) Hawthorne(2004)은 지식귀속에 대한 맥락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그 문제점을 피하면서도 지식귀속의 민감성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자가 알기에 처음으로 주체-민감주의를 제안했다.

맥락에 민감한 용어들과 의미론적으로 같이 취급될 수 없는 언어적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안다’에 대한 맥락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관찰은 맥락주의에 반대하는 중요한 증거가 됨에 틀림 없다. 하지만 필자는 우리가 그로부터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맥락주의에 대한 Stanley의 반대 증거들은 그대로 주체-민감주의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5)</sup> ‘평평한’, ‘키 큰’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다’가 ‘확실한’, ‘행복한’과 같이 주체의 맥락에 민감한 용어들과 의미론적으로 같이 취급될 수 없는 언어적 증거들이 관찰되니 말이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이 옳다면, 우리는 여기서 ‘안다’에 대한 민감주의 의미론 일반에 대해 반대되는 언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 ‘안다’가 언어적으로 절대적 용어 및 민감한 용어 일반과 같이 취급되기 어려운 이유를 보이고자 하는 논증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다: (A) 민감한 용어들은 어떤 언어적 특징들을 가진다. (B) 반면에 ‘안다’는 그런 언어적 특징들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다’와 다른 민감한 용어는 같이 취급될 수 없다. (발화의 맥락에 민감한 절대용어로 ‘평평한’을, 발화의 맥락에 민감한 상대용어로 ‘키 큰’을, 주체의 맥락에 민감한 절대용어로 ‘확실한’을, 주체의 맥락에 민감한 상대용어로 ‘행복한’을 들면,)

- (A-1) 저 도로는 평평하다. 그러나 **정말로** 평평한 것은 아니다.  
(발화맥락 민감)  
영호는 키가 크다. 그러나 **정말로** 키가 큰 것은 아니다.  
(발화맥락 민감)
- (A-2) 저 도로는 **매우** 평평하다. / 영호는 **매우** 키가 크다. (발화 맥락 민감)  
영호는 p를 **매우** 확신한다. / 영호는 **매우** 행복하다. (주체 맥락 민감)

---

15) Stanley는 맥락주의를 비판하고서 대신 지식귀속에 대한 주체-민감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04, 142-3) 하지만 필자의 앞으로의 관찰이 옳다면 이러한 주장은 썩 정합적으로 보이진 않다. 왜냐하면 맥락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그대로 주체-민감주의에 대해서도 하나의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A-3) 책상이 도로보다 더 평평하다. / 영호는 철수보다 더 키가 크다. (발화맥락 민감)  
 영호는 철수보다 p를 더 확신한다. / 영호는 철수보다 더 행복하다. (주체맥락 민감)
- (B-1) 영호는 p를 안다. 그렇지만 p를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다(?).  
 (B-2) 영호는 p를 매우 많이 안다(?). / 영호는 p를 매우 잘 안다(?).  
 (B-3) 영호는 철수가 p를 아는 것보다 p를 더 안다(?).

위 (A-1), (A-2), (A-3)는 매우 자연스럽게 진술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안다’가 발화의 맥락에 민감한 용어와 같이 취급된다면 (A-1), (A-2), (A-3)에서 발화의 맥락에 민감한 용어들이 그런 것처럼 ‘안다’는 ‘정말로’, ‘매우’와 같은 강조부사로 자연스럽게 수식될 수 있고 또한 자연스럽게 비교급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안다’가 주체의 맥락에 민감한 용어와 같이 취급된다면 (A-2), (A-3)에서 주체의 맥락에 민감한 용어들이 그런 것처럼 ‘안다’는 ‘매우’와 같은 강조부사로 자연스럽게 수식될 수 있고 또한 자연스럽게 비교급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안다’의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를 허용하지 않는다. 첫째, 만약 영호가 p를 정말로 아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영호가 사실 p를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B-1)과 같이 말하지 않는다. 혹시 “영호는 (일상적인 맥락에서) p를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p를 정말로 (즉 인식론 시간의 맥락에서)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도 (B-1)이 자연스럽게 진술될 수 없다는 필자의 주장은 논점을 선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른다.<sup>16)</sup> 주목해야 할 점은 필자는 여기서 이룬 중립적으로 우리의 언어현상을 관찰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 반대자가 자신의

---

16) 이것은 익명의 한 심사자께서 제기한 비판이다. 이 점에 대해 그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언어 직관이 (B-1)을 발화하는 데에 아무런 거부감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B-1)은 테스트 데이터로서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자가 제기한 것으로는 정말 반대자가 필자와 상충하는 언어 직관을 가지는지 분명치 않다. 반대자는 “영호는 p를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p를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B-1), 즉 “영호는 p를 알지만 p를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다.”를 발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필자의 주장과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 아마도 반대자는 (B-1)이 자연스럽게 발화될 수 있는 민감주의적 해석이 있음을 제시하려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는 이미 이론 중립적으로 우리의 언어적 사용을 관찰하고자 한 필자의 논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영호는 p와 관련된 매우 많은 증거를 가질 수 있거나 또는 p와 관련된 매우 많은 다른 명제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p 자체를 안다면 단순히 p를 아는 것이지 p를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호는 p를 매우 많이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영호가 p를 매우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가? 물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종종 말하긴 하지만 그 발화는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영호가 p를 매우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Stanley(2004, 126)가 지적한대로, 그것의 부정인, 영호가 p를 알기는 한데, 잘 아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또한 적절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발화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영호가 p를 잘 아는 게 아니라면 ((B-1)에서처럼) 결국 p를 아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2) 또한 자연스럽게 진술될 수 없다.

셋째, 영호는 철수보다 p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가지거나 또는 철수보다 p와 관련된 더 많은 다른 명제들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영호가 p 자체를 알고 철수도 p 자체를 아는 것이라면 영호는 p를 철수보다 더 아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B-3)는 자연스럽게 진술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안다’는 다른 민감한

용어와 달리 ‘정말로’, ‘매우’와 같은 강조부사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식되지 않고 또한 비교급을 자연스럽게 허용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안다’가 민감한 용어와 (발화의 맥락에든 주체의 맥락에 든) 같이 취급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매우 강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5. ‘안다’는 왜 민감한 용어로 간주될 수 없는가?

우리는 앞 절에서 ‘안다’가 (발화의 맥락이나 주체의 맥락에) 민감한 용어로 간주되기 어려운 언어적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안다’와 다른 민감한 용어들 간의 어떤 차이가 ‘안다’를 민감한 용어일 수 없게 하는가?

우선 맥락에 민감한 용어와 ‘안다’의 경우를 비교해 보자.

(9) 영호는 키가 크다.

철수는 (9)를 주장하지만 준호는 (9)를 부정했다고 해 보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철수와 준호의 진술은 겉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모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에 우리는 일단 그들이 각각 어떤 증거집단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가 명시되면, 거기엔 어떤 모순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철수와 준호간의 표면적 충돌은 보통 단지 그들의 발화의 맥락이 명시되는 것으로 종결된다. 반면에 ‘안다’의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

(10) 나는 p를 안다.

영호는 (10)을 주장하지만 철수는 (10)을 부정한다고 하자.<sup>17)</sup> 여기

17) 물론 철수는 위 (10)에서 ‘나’ 대신 ‘너’를 대입하여 (10)에 대한 부정진술을 할 것이다. 그러한 세부사항은 맥락에 의해 적절히 해석되어 이해

서 우리는 ‘키 큰’의 경우와는 달리 영호와 철수의 진술이 겹보기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서로 상충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발화의 맥락을 명시한다고 해서 그러한 모순적 분위기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sup>18)</sup> 그래서 우리는 영호와 철수간의 충돌은 그들의 발화의 맥락이 명시됨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정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sup>19)</sup>

이러한 비대칭성은 정확히 어디서 비롯하는가? ‘키 큰’과 같이 발화의 맥락에 민감한 용어 사용을 평가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는 전부는 발화자의 맥락이 어떠한가, 발화자가 어떤 준거집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발화자는 그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준거집단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와 관련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 준거집단의 키가 너무 작아서 발화자가 그 준거집단을 염두에 두고서는 ‘키 큰’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준거집단은 원리상 있을 수 없다. 어떤 발화자는  $10^{20}$ mm인 가상의 생물체 집단을 염두에 두고서  $10^{10}$ mm인 다른 가상의 생물체가 키가 크다고 참되게 말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전부는 그 발화의 맥락에서 어떤 기준(준거집단)이 적절히 전제되어 있는가이다. 그래서 일단 발화의 맥락이 명시되고 나면 그 발화가 참인가와 관련해 더 해야 할 일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반면에 ‘안다’와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모든 권리가 발화자에게

---

되는 것으로 한다.

- 18) 이러한 직관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다. 예를 들어, Schiffer(1996), Sosa(2000). 또한 이러한 비대칭성이 평평한 것에 대한 회의적 논증에 대한 대응과 달리 지식에 대한 회의적 논증에 대한 민감주의적 대응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직관은 또한 한 심사자에게서 공유해 지적해 주신 점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19) 여기서 필자는 맥락주의에 반대하는 “회의론의 역사를 통한 논증”을 구성할 수도 있다: 맥락주의가 참이라면 지식과 관련하여 무어주의자와 회의론자들 간의 충돌은 그들 각각의 맥락을 명시함으로써 종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의론 논쟁에 관한 역사는 일시적 종결도 그리고 종결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맥락주의는 참이 아니다.

이양되어 있지 않다. 어떤 발화자가 매우 낮은 정당화 기준을 염두에 두고서 (예를 들어, S가 누구든 ‘p’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 듣기만 하면 S가 p를 믿는 게 그에게 정당화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일 때) S가 p를 안다고 발화할 때 우리는 발화의 맥락에서 그러한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그 발화자가 S는 p를 안다고 참되게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경우 그 발화의 맥락이 명시되면 우리는 그 발화가 참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안다’란 용어가 적용되기 위해 발화의 맥락에서 어떤 기준이 전제되어 있는가보다는 바로 어떤 기준이 전제되어야 하는가이다. 발화의 맥락이 명시되고 나서도 우리에게 영호와 철수 간의 충돌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간단히 말해, 민감한 용어의 경우에는 그 용어의 발화가 어떤 기준을 전제하여 이뤄졌는지만이 유관한 사실인 반면 ‘안다’의 경우에는 그 발화가 참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발화의 맥락에서 어떤 기준이 전제되었는가와 더불어 그 기준이 적절한 기준인가를 평가하게 하는 추가적 규범적 사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이 그 비대칭성을 이룬다. 그리고 이 차이가 ‘안다’를 민감한 용어일 수 없게 하는 것이다.<sup>20)</sup>

20) 필자는 맥락에 민감한 용어로 ‘키 큰’을 고려했다. 만약 다른 민감한 용어 ‘평평한’은 어떠한가? 익명의 한 심사자에게서는 어떤 화자가 매우 낮은 평평도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서 “x는 평평하다.”고 말한다면 그 진술에서 전제되는 평평도의 기준이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해 주셨다. (이 지적에 대해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물론 언뜻 보기에 누군가 엄청난 굴곡이 진 지형을 보고 “저것은 평평하다.”고 발화한다면 그 평평도 기준이 어떤 의미에서 ‘터무니없다’고 생각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필자의 논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그 화자가 상정한 평평도의 기준이 우리가 보통 관여하고 있는 기준에서 너무 멀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다’고 말하더라도 그가 일단 그 평평도의 기준이 적절해 지는 맥락에서 발화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발화를 참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 화자는 75도의 날카로운 경사로 이루어진 지형과 견주며 어쨌든 등반장비를 가지고 오를 수 있을 정도에서 “저것이 평평하다.”고 발화했다면 우리는 그의 발화를 터무니없어

이러한 차이는 한 맥락에서 발화된 것이 새로 형성된 다른 맥락에서 평가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발견된다. ‘안다’를 주체의 맥락에 민감한 용어 ‘행복한’과 비교하면,

(11) 영호는 10분 전에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하다.

영호가 10분 전에 행복했는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그 자신의 맥락, 즉 그가 연인과 함께 소풍 중이었다는 것이나 다른 걱정거리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 등등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실은 없다. 또한 지금 불행한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그가 다음 달에 입대한다는 것이 그에게 부각되고 그것이 그에겐 불행의 요소라는 것 등등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실은 없다. 즉, 10분 전과 지금의 두 주체의 맥락에서의 영호의 행복여부는 각 주체의 맥락 내적으로만 결정될 뿐 각각의 맥락은 서로 독립이다. 따라서 지금 영호의 불행을 성립시킨 주체맥락은, 10분 전의 주체맥락에서 영호의 행복이 참인가를 평가하는 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영호의 불행은 10분 전 그가 행복했다는 것을 파기하지 않고 또한 그래서 이 상황에서 (11)을 발화하는 것은 전혀 부자연스러울 게 없다.

그러나 ‘안다’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 영호는 세 개의 방을 차례로 들어간다. 1번방의 벽은 빨간색으로 보인다. 그는 그 벽이 빨강임을 안다고 생각한다. 2번방의 벽은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런데 천정에 파란 조명장치가 흰 벽을 비추고 있음

---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키 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누군가 만약  $10^{-10}$ mm인 미생물을 보며 “저것은 키가 크다.”라고 발화하면 언뜻 그 키 크의 기준이 어떤 의미에서 ‘터무니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준에서 그 기준이 멀기 때문이지 그 기준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10^{-20}$ mm인 미생물 집단과 견주며 그것을 발화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발화를 참으로 간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안다’와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안다’에 관여하는 규범성을 다른 민감한 용어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을 깨달는다. 3번방의 노란 벽의 경우도 2번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이제 영호는 1번방의 벽이 정말 빨강인지 의심되기 시작한다. 다시 1번방으로 가보니 벽은 빨강으로 보이나 천정을 확인할 길은 없다. 그는 10분 전에 그랬던 것과는 달리 그가 1번방의 벽이 빨강임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10분 전의 주체의 맥락만 고려하면 영호는 그 벽이 빨강임을 안다는 것은 참인 것 같다. 그의 지각체계는 정상적이므로 특별히 그것을 의심할 일이 없다. 하지만 일단 새로 도입된 맥락(즉, 지금의 맥락)에서 10분 전의 지식여부를 평가하게 되면 새로운 맥락이 10분 전의 맥락을 무력화하여 우리는 영호가 1번방의 벽이 빨강임을 알았다는 10분 전의 주장을 철회하게 된다. 즉 지금 영호의 무지를 성립시킨 주체맥락은 10분 전의 주체맥락에서 영호의 지식이 참인가를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달리 말해, ‘안다’와 관련해 고려되는 각각의 맥락은 민감한 용어의 경우와 달리 서로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12) 영호는 1번방의 벽색이 빨강임을 10분 전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른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기를 꺼린다. 오히려 우리는 영호가 10분 전에 그걸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필자와 같은 지식의 규범성을 전제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12)를 받아들이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 사례는 필자의 주장을 지지하기보다 필자의 주장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sup>21)</sup> 논의를 위해 (12)가 참이라고 하자.

21) 한 심사자께서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다. 이와 관련해 심사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실 심사자께서는 “영호는 법무장관의 이름이 천정배라는 것을 10분 전에 알았는데, 기억력이 나빠 이제 그것을 망각하여, 법무장관의 이름이 천정배라는 것을 지금은 모른다.”라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얇이 두뇌과정의 일종이라고 은연중에 전제하고 있고 따라서 일단 지식의 규범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12)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 예가

영호의 지각체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그 지각체계를 통해 형성된 10분전의 영호의 믿음은 1번방의 벽색이 빨강임을 신빙성있게 가리킨다고 하자. 그래서 10분전의 믿음은 지식이 된다. 그러면 왜 지금은 같은 믿음이 지식이 되지 못하는가? 증거상의 차이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다시 1번방을 바라볼 때나 10분전에 바라볼 때나 영호의 지각체계는 동일한 증거를 수용하고 있다. 차이는 오직 지금 영호에게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회의적 가설이 부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10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정도로 신빙성있는 지각체계를 통해 동일한 증거를 수용하고 있다면 10분전의 믿음이나 10분후의 믿음은 지식의 지위에 있어 동등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지식이 순전히 자연적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말이다. 그렇다면 (12)는 참일 수 없다.

또한 지각적 지식은 단순히 회의적 가설에 의해 파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쉬운 지식(easy knowledge)의 문제’에 봉착한다.<sup>22)</sup> 1번방의 벽색이 빨강이라는 최초 영호의 믿음이 지식이고 그것이 지금의 회의적 가설에 의해 파기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로부터 영호의 지각체계가 신빙성있다는 것에 대한 지식을 다음처럼 도출할 수 있다: 영호의 지각체계가 신빙성있지 않다면 최초 영호

---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일단 이 예에서 ‘안다’는 사실 ‘기억한다’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더 중요하게는 위 발화는 지식이 주체에게 시간 상대적으로 성립한다는 문제없는 사실만 받아들인다면 - 지식의 규범성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 허용될 수 있고 따라서 위 발화사례가 특별히 지식의 규범성에 반대하는 쪽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자에게서 들어 준 사례는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관련 증거를 (망각을 통해) 손실함으로써 성립함에 반해 필자의 사례는 증거의 손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락에 회의적 가설이 부각된다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자에게서 진정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따로 있었다고 생각하고, 필자가 심사자에게서 말하고자 했던 바를 제대로 추측했다면, 그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따라서 필자는 그 점을 위 본문에서 이어서 전개하고자 한다.

22) 쉬운 지식의 문제는 Cohen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그런데 영호의 그 믿음은 지식이다; 그러므로 영호의 지각체계는 신빙성있다. 하지만 인식주체의 지각체계가 정상적인가를 아는 것이 이토록 (그저 지각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 쉽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호의 두뇌를 MRI 촬영을 하는 등의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귀속과 관련해 성립하는 맥락 간 지배관계는 부정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안다’와 관련한 발화가 각각의 맥락 내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은 ‘안다’의 발화를 평가하는 데에는 각각의 맥락 내에서 성립하는 사실 이외에 다른 어떤 추가적 사실이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고 이는 다시 앞서 지식 평가에는 어떤 규범적 사실(어떤 기준이 옳은 기준인가)이 관여한다는 필자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지지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맥락 간 지배현상으로부터 지식귀속의 규범성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혹시 민감주의자가 이러한 추론을 문제 삼을지 모르겠다. 만약 새로운 맥락이 형성될 때 그 맥락이 이전 맥락을 무력화하고 새로이 형성된 맥락을 바탕으로 이전의 발화가 재평가 되는 것은, ‘안다’가 옳게 적용되는 맥락은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규범적 사실에서가 아니라 단지 새로 형성된 맥락이 항상 이전 맥락보다 우선권을 갖게 하는 우리의 습관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맥락이 이전 맥락을 무력화하는 것은 ‘안다’가 옳게 적용되는 맥락이 지녀야 하는 어떤 규범적 특징 때문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맥락이 시간적으로 평가자와 더 가깝다는 우연적 사실에 의해 성립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민감주의자의 추측은 맥락 이동의 일방향성에 의해 반증된다. 우리는 어떤 주체 S가 어떤 맥락 C<sub>1</sub>에서 p를 안다고 주장했던 것을 C<sub>1</sub>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맥락 C<sub>2</sub>를 형성함으로써 철회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낮은 기준이 허용되는 새로운 맥락 C<sub>3</sub>를 형성함으로써 S가 p를 안다는 주장을 다시 참이게 하면서 C<sub>2</sub>에서의 S의 지식주장을 철회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맥락 이동의 일방향성(낮은 기준의 맥락을 높은 기준의 맥락으로 이동할 수는 있으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은 우리의 지식개념에는 철저히 그 맥락 내적 사실들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되는 민감한 용어와는 달리 맥락을 넘어서서 그 맥락들을 평가하게 하는 어떤 규범적 요소가 있다는 필자의 주장을 더 강화시켜 준다.

이 절에서 필자는 왜 ‘안다’는 민감한 용어일 수 없는가를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 이유로 필자는 우리의 지식개념에는 민감한 용어개념에 결여된 규범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한 규범적 요소가 우리의 지식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한 ‘안다’는 민감한 용어로 간주될 수 없다.<sup>23)</sup> 사정이 이렇다면, 지식귀속에 대한 민감주의는 포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민감주의자는 직접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에는 실패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민감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른다. 다시 말해 그들은 둔감주의만의 어떤 이론적 결함(오류이론에 호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그 결함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을 근거로 민감주의를 지지하려 할 수 있다. 남은 절에서 필자는 민감주의자의 그러한 시도도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이도록 하겠다.

## 6. 오류이론: 둔감주의만의 심각한 이론적 결함인가?

회의론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회의론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어진다는 점에 있다. 회의론이 옳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지식발화는 모두 거짓이 된다.<sup>24)</sup> 따라서 회의론자는 이러한 귀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의미론이 우리의 전-이론적인 언어습관의 일부와 충돌할 때 그 의미론이 그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화용론적 설명을 제시하거나 오류이론에 호소하는 것이다.

23) 자연화된 인식론을 통해 인식론에서 규범성을 완전히 축출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것에 회의적이다.

24) 물론 여기서 이 점을 근거로 민감주의자가 (의미론적 면도날)을 근거로 둔감주의를 거부할 수는 없음은 분명하다. 앞서의 절들의 논의는 둔감주의자가 지식발화를 거짓으로 만들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상명제 O를 안다고 말하는 우리의 언어습관을 부정하는 회의론자는 그에 대해 화용론적 설명을 제시하거나 오류이론(error theory)에 호소해야 한다: O를 안다고 말할 때 보통 화자는 그것이 사실 거짓이라고 믿고 있지만 **화용론적** 고려에 의해 그 거짓 명제를 발화한다고 해명하거나, 사실 O가 거짓이지만 보통의 화자는 그것이 참인 것으로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해야 한다. 그런데, Hawthorne(2004, 119)이 지적했듯이, 보통의 화자가 O를 안다고 발화할 때 자신의 발화가 사실은 거짓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점을 존중한다면 회의론자는 화용론적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 결국 오류이론에 호소해야 한다.<sup>25)</sup>

오류이론에 호소하는 이론은 바로 그 사실 자체로 인해 거부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어떤 정치윤리이론에 따르면 반상제도는 정의롭지 않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의 언어습관은 “반상제도는 정의롭다.”고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이 정치윤리이론은 그러한 보통의 조선시대 사람들의 언어습관의 일부를 부정하는 셈이다. 이 이론은 이에 대해 “반상제도는 정의롭다.”는 발화는 실제로 거짓인데 조선시대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이 참인 것으로 **잘못** 믿었다고 설명한다. 즉, 일종의 오류이론에 호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이 정치윤리이론이 오류이론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그 이론을 거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 오류이론에 호소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 이론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주의자는 중요한 차이점에 근거해 위 정치윤리이론의 오류이론은 받아들여면서도 회의론의 오류이론은 거부하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롭다’란 용어를 반상제도에 잘못 적용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성에 의해 그 오류가 받아들여지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용어를 반상제도에 적용시키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일상명제에 ‘안다’를

25) 회의론에서 제시할 수 있는 몇몇의 화용론적 설명과 그에 대한 비판을 보기 위해선 Hawthorne(2004) 119-124 참조.

적용시킬 수 없다는 회의론자의 반성적 사고에 충분히 동감하고서도 보통 화자는 ‘안다’를 일상명제에 계속 적용시킨다. (조금이라도 회의적 맥락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거리낌 없이 다시 일상명제를 안다고 말한다.)<sup>26)</sup> 정치윤리이론에서와 달리 회의론에서의 오류이론은 우리 언어사용과 관련해 어떤 교정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

논의를 위해, 민감주의자를 따라 어떤 이론이 오류이론에 호소하지만 그것이 어떤 교정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만약 민감주의에서는 어떤 교정적 역할도 하지 못하는 오류이론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면 그것을 근거로 둔감주의는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민감주의에는 같은 종류의 문제가 없는가?

우선 다음의 예를 보자.<sup>27)</sup> 영호는 국제복권에 당첨되어 유럽여행 중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가고 있다. 옆자리의 철수가 항공 일정표를 보며 “음, 이 비행기는 스위스에 들르겠군.”이란 발화를 듣는다. 영호는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를 통해 영호는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불현듯 영호는 깨닫는다. 오늘 안으로 스위스 은행에 들러 당첨금을 찾아 가지 않으면 당첨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영호는 정말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르는지 초조해 지기 시작한다. 혹시 철수가 이전 일정표를 본 건 아닐까?, 일정표 인쇄가 잘못 되진 않았을까? 영호는 승무원에게서 확인을 받을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이 경우 우리는 다음의 영호의 진술들

(13) 나도 모르지만 철수도 사실 이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걸 알지 못한다.

26) 회의론이 전제하는 오류이론에 대한 이런 비판은 널리 공유되어 있다. Unger(1975, Ch.2) 스스로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답할 필요성을 느꼈고 Hawthorne(2004, 126-32), MacFarlane(forthcoming)은 이런 이유로 회의론을 부정한다.

27) 이 예는 Cohen(1999, 57-60)의 것을 약간 바꾼 것이다.

(14) “나는 이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걸 알아”란 철수의 말은 참이 아니었다.

가 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13)을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13)을 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영호의 이상한 발화 “철수는 이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이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르는지 더 확인해 봐야해.”가 허용된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14)를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14)를 부정한다면 영호가 “좀 전의 ‘나는 이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걸 알아’란 철수의 말은 참이었지만 철수는 이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걸 몰라.”라고 발화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주의는 (13), (14)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언어적 직관을 부정한다. 주체-민감주의에 따르면 (13)은 거짓이다. 철수는 그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믿음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에게 그것을 부정할 어떤 회의적 가설도 부각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주체, 즉 철수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철수가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물론 영호에게는 회의적 가설이 부각되어 있어서 그가 스위스에 들르는지 알기 위해 만족해야 할 기준은 그 맥락에서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영호는 그것을 모른다. 하지만 주체-민감주의에 따르면 지식귀속은 발화의 맥락과는 독립적이어서 발화자(영호)에게 부각된 회의적 가설은 인식주체(철수)의 지식을 파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영호는 모르고 철수는 아는 게 된다.<sup>28)</sup>

28) 이러한 귀결의 거북함은 영호가 철수의 지식여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회의적 가설이 부각되기 전의 자신을 평가할 때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영호는 처음에 철수의 말을 통해 스스로 그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회의적 가설이 부각되어 이제 그것을 모른다고 할 때 영호가 “나는 지금 이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것을 모르지만 5분전에는 그걸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게 들린다. 하지만 주체-민감주의에 따르면 이 문장은 참이

또한 맥락주의에 따르면 (14)는 거짓이다. 맥락주의에 따르면, 지식귀속은 발화의 맥락에 민감하게 결정된다. 따라서 (14)에서 “나는 이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것을 안다”란 철수의 발화는 발화자가 철수이므로 철수의 맥락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철수에겐 어떤 회의적 가설도 부각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가 그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만족해야 할 인식적 기준은 충분히 낮고 철수는 그 맥락에서 그것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나는 이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것을 안다.”란 철수의 발화는 참이 된다. 따라서 맥락주의에 따를 때, (14)는 거짓이 된다.<sup>29)</sup>

따라서, 민감주의자는 그들의 의미론 내에서 우리의 언어습관의 일부가 부정되는 귀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들은 그에 대해 화용론적 설명을 제시하거나<sup>30)</sup> 오류이론에 호소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13), (14)의 발화가 사실 거짓이라고 믿으면서 어떤 화용론적 고려에 의해 그것을 발화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13), (14)가 발화하기에 자연스럽게 뿐 아니라 그것이 참이라고도 믿는다. 따라서 민감주의자는 화용론적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그들은 일종의 오류이론(error theory)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sup>31)</sup> 즉, 그들에 따르면, (13), (14)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이 참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셈이다.

앞서 보았듯 어떤 이론이 오류이론에 호소한다는 사실 자체로 그

---

다. 그 발화가 이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이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것을 모르고 또한 5분전에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주체-민감주의에 대한 이런 문제는 Hawthorne(2004, Ch.4) 스스로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29) 맥락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Schiffer(1996)에 의해 주로 지적되었다.

30) 예를 들어, Hawthorne(2004, 159-60;162-6).

31) MacFarlane(forthcoming) 또한 맥락주의나 주체-민감주의가 오류이론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지적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민감주의와 둔감주의 간의 논의의 변증적 구조에서 어떤 귀결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론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이론이 오류이론에 호소하면서 어떤 교정적 역할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만 그 이론이 거부된다. 민감주의자의 오류이론은 교정적 역할을 하는가? 논증을 위해 민감주의 의미론의 이론적 장점과 반성적 사고에 충분히 동감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13), (14)가 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언어적 습관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영호는, 만약 그가 민감주의자들의 책을 정독했다고 해도, 철수가 그 비행기가 스위스에 들른다는 것을 여전히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의 언어적 습관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민감주의자도 회의론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 언어에 대한 교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류이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민감주의자가 처한 상황을 일종의 딜레마로 제시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만약 그들이 그들의 의미론에서 (13), (14)가 거짓이라는 반직관적 사실을 해소하는 데에 교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오류이론에 호소하지 않는다면 그의 견해는 심각한 의미론적 변칙사례에 직면한다. 다른 한편 만약 그들이 민감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그들의 오류이론에 호소한다면 그들은 마찬가지로 이유론 회의적 둔감주의자가 오류이론에 호소하는 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어느 쪽도 민감주의자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인 것 같다. 따라서 지식귀속과 관련해 둔감주의가 호소하는 오류이론을 문제 삼아 민감주의를 지지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일 수 없다.<sup>32)</sup>

32) 혹시 민감주의자가 둔감주의자는 '안다'를 언어적 돌연변이(freak)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둔감주의를 거부하려 할 지 모른다. Unger(1975) 또한 이러한 우려로 '안다'를 절대적 용어에 포섭하려 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두 가지다. 첫째, '안다'를 언어적 돌연변이로 간주하는 것이 진정 문제인가 의심할 수 있다. 우리의 지식개념이 다른 개념과 달리 독특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용어와 달리 취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둘째, 민감주의자 역시 '안다'를 언어적 돌연변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 '안다'는 다른 민감한 용어들과는 똑같이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 7. 결론

절대적 용어에 대한 민감주의를 바탕으로 ‘안다’에 대한 민감주의를 제시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절대적 용어에 대한 의미론이 둔감주의이어서가 아니라 ‘안다’가 절대적 용어 더 나아가 민감한 용어 일반과 같이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안다’는 오히려 비정도-용어로 분류되어야 한다. 물론 ‘3kg이다’와 같은 비정도-용어와는 달리 ‘안다’는 어떤 점에서 맥락에 민감한 측면을 가진다. “이것은 3kg이다.”란 진술은 어떤 점에서도 맥락에 민감하지 않지만 “영호는 p를 안다.”란 진술은 회의적 가설이 부각되는 등의 맥락의 변화에 의해 어느 정도 민감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지식귀속 자체가 맥락에 민감하다는 것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식개념을 구성하는 하위개념 중 하나, 예를 들어 정당화 개념은 (주체의) 맥락에 민감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어떤 믿음은 정당화되었다가도 다른 회의적 맥락에서 그 믿음은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안다’가 맥락에 민감한 측면을 가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개념을 이루는 다른 하위개념이 맥락에 둔감한 어떤 조건을 이룬다면, 예를 들어 “p가 지식이기 위해선 non-p일 객관적 확률이 없어야 함”이라면 지식귀속은 결국 맥락에 둔감하게 된다. 이 경우, 어떤 맥락에서 S의 p-믿음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non-p일 객관적 확률 때문에) 지식이 아닐 수 있다. 다른 맥락에서 그 믿음은 정당화되었어도 non-p일 객관적 확률이 있다는 점에서 지식이 아닐 수 있다. 여기서 필자의 주된 논의는 지식귀속에 대한 민감주의 의미론에 대한 비판에 있었다. 물론 적극적으로 둔감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필자가 상정한 규범성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결코 제거될 수 없는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고 또한 둔감주의가 호소하는 오류이론에 대한 적절한 이론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다음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 참 고 문 헌

- Cohen, S. (1999), "Contextualism, Skepticism, and the Structure of Reasons", *Philosophical Perspectives* 13: 57-89.
- DeRose, K. (1995), "Solving the Skeptical Problem", *Philosophical Review* 104: 1-52.
- Dretske, F. (1970), "Epistemic Operators", *Journal of Philosophy* 67: 1007-23.
- Hawthorne, J. (2004), *Knowledge and Lotte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plan, D. (1989), "Demonstratives: An Essay on the Semantics, Logic,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of Demonstratives and other Indexicals", in J. Almog, J. Perry, and H. Wettstein (eds.), *Themes from Kapla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 (1983), "Scorekeeping in a Language Game", in his *Philosophical Papers*,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 (1996), "Elusive Knowledge",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4: 549-67.
- Lewis, D. (1998), "Index, Context, and Content", in his *Papers in Philosophical Logic*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Farlane, J. (forthcoming), "The Assessment Sensitivity of Knowledge Attributions", in Tamar Szabo Gendler and John Hawthorne (eds.), *Oxford Studies in Epistem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Schiffer, S. (1996), "Contextualist Solutions to Skepticism",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96: 317-33.
- Sosa, E. (2000), "Contextualism and Skepticism", *Philosophical Issues* 10: 1-18.
- Stanley, J. (2004), "On the Linguistic Basis for Contextualism", *Philosophical Studies* 119: 119-46.
- Unger, P. (1975), *Ignorance: A Case for Skeptic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